

번역)트로츠키<관료제, 발전주의, 반동주의에 반대한다>1924

17

<관료제, 발전주의, 반동주의에 반대한다>

노동계급의 생활 속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마지막이 되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 목적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으며, 제 생각에는 대중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익을 진보적이기보다는 더 관료주의적인 비판가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발전주의적 관료제는 언론에서, 회의에서, 회관에서 생활 문제들이 논의되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논의 같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당국이 공동 부엌, 탁아소, 세탁소, 요양소 등등을 운영하게 합시다” 관료주의 일간자들은 보통 “다 말에 불과하지, 더 뭐가 없겠습니까”라는 말을 덧붙이고는 합니다(혹은 은연 중에 나타내거나, 소곤대는 식으로 운을 때는 걸 선호합니다). 관료는 “우리가 부유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군말없이 프롤레타리아들에게 문화 있는 생활 환경을 제공할 마냥 줄 것입니다”이라 희망합니다”(저는 관료가 훌륭한 재정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비판자들은 말합니다 “사회주의 선전을 대중들에게 계속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의 과정이 ‘사회적인 감각’을 만 들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우리는 무엇이라 답해야 할까요? 만약 “사회적인 감각”이 노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사회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수단이었던다면, 왜 공산당이 필요한 걸까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활의 재건을 위한 결단적 의지로의 길로부터 모호한 “사회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당의 과업은 언제나 그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문제는 반드시 대중 의식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정부라 할지라도, 대중의 주도 없이 생활을 바꾸기란 불가능합니다. 국가는 공동체의 작은 영역인 가정 하나 하나까지의 생활 환경을 조직할 수 있지만, 이 영역이 스스로가 내린 결정과 복리를 향한 의지로 결합하지 않는다면, 경제여건과 가정 생활 속에서 그 어떠한 진정하고 급진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상황의 문제는 공동부엌이나, 탁아소, 공동 주택 같이 새로운 생활을 위한 시설의 부족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여성들이 공동 탁아소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을 거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혁신에 반하는 무기력과 편협함 때문에 그들은 보수적입니다. 공동체에 사는 많은 가정들에게 할당되었던 주택들은, 불결한 환경이 되어서는 살 수가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주택들에 사는 인민들은, 공산주의적 주택을 새로운 환경의 시작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국가에서 준 막사 같은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준비부족, 성급한 방법들과, 자제력 부족 그리고 문화의 부족으로, 이 공동체들은 아주 흔하게 완전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비판적 고찰과, 숙고되고 세심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가정 환경에 대한 향상된 의식과, 문화 있는 생활에 대한 노동계급의 남성과 여성들의 늘어난 요구(특히 여성들의 요구) 속에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의 최근 사례들을 들어보죠, 생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주도과 대중의 주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케르젠체프 동지의 활력에 감사하게도, 시간엄수라는 가장 중요한 생활의 기본이 조직화된 집중을 받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관료주의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 봅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왜 논의하고, 선전 하고, 가입자들에게 훈장을 주는 연맹을 만드는 등등을 하는거죠?, 당국이 법령을 만들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두어 시간엄수를 강제하면 되지 않거나요?”, 불행하게도, 그러한 법령은 이미 존재합니다. 3 여년 전 저는 레닌 동지의 강력한 지지 덕분에, 직장 회의, 위원회 등등에 대한 참석에 시간엄수를 두는 규정을 제정했고, 당과 소비에트들에서도 이를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것처럼,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있었습니다. 몇몇 좋은 점도 이 규정 덕분에 생겼지만, 불행히도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책임감 있는 노동자들은 현재도 위원회 회의에 30분씩 그리고 그 이상 늦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업무가 너무 많아 늦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과 다른 이들의 무사태평함, 그리고 시간 개념 부족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바쁘기에” 항상 늦는 자는, 항상 시간 맞춰 오는 자보다 대체로 훨씬 비효율적으로 일합니다. “시간 연맹”에 대한 논쟁을 할 때마다 인민들은 그런 법령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 잊은 것처럼 보이기에 참 흥미롭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언론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법령 하나 가지고는 나쁜 습관을 바꾸어 놓기가 얼마나 힘든 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한 법령은 망각 속에서 분명하게 구출되어, “시간 연맹”을 위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전 노동 분자들의 노력으로 하여금 시간엄수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행정조치들은 더 좋은 일들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책임감있는” 노동자들은 대중적 통제의 이목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들은 수백, 수천의 노동자들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 조심할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례를 들죠, “당국”은 수년간 질 낮은 인쇄, 책 교정, 박음질과 접지에 맞서 싸웠습니다. 몇 몇 개선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 많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쇄와 출판의 결점은 우리 기술이 떨어져 서가 분명하게 아닙니다. 잘못된, 충분히 면밀하지 못하고, 충분히 교양이 있지 못한 독자들에게 있습니다. 노동자 신문을 여러 예 중 하나로 들자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신문이 페이지의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지나 접혀 있습니다. 읽기 전 독자는 올바른 방향으로 신문을 다시 접고 흰 페이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걸 트램 안에서 다 해야 한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부르주아 출판업자도 이런 신문을 감히 독자 앞에 보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 모스크바 신문은, 신문의 8 페이지가 잘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됩니다. 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페이지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대부분은 손으로 해, 글이 실린 부분도 많이 자주 찢어집니다. 신문은 구겨져서 처음 독자가 읽고 다음 독자에게 넘길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무신경함이 관용되어야 하나요? 물론, 발전적인 관료제는 출판업자들의 둔함을 탓할 것입니다. “그들의 둔함은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에 맞서야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무기들을 당 회의 결의안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독자들의 소극성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편리에 대해 갖는 무심함이고, 교양 있는 문화의 부족입니다. 그들이 출판업자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한번 혹은 두 번 내리친 적이(교양 있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있나요? 그는 절대 신문이 잘리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문 페이지를 자른다거나 책 박음질 같은 작은 문제들

까지도 세심히 조사되어서 대중 안에서 넓게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대중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교육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과 가정 안 내적 관계의 복잡한 망에도 더 많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소비에트 정부가 감탄이 나오는 구들이 가득한 주택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공동체들을 만들어서는 프롤레타리아들을 불러 살던 곳을 떠나 새 환경으로 오라 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도 영향 받아 상황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라 (물론 질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가정한다면 말이죠. 인민들이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가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새 생활 습관은, 그들이 옛 생활 방식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그들은 새 생활 습관을 향해 서서히 자라야 합니다. 아니면, 그들은 반드시 그들이 미래에 그럴 것처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활의 개편은 우리 소비에트 환경 아래 지급된 임금으로 주어진 부로 시작되어야 하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어떤 것들 이든, 공동 살림살이가 각 가족들이 따로 하는 것보다 실용적입니다. 옆에 있는 방 하나 혹은 두개를 희생해서 지은 큰 방의 부엌 하나가 5개는 물론 10개의 분리된 부엌보다 더 득이 되는 배치입니다. 만약 변화들이 대중의 주도와 당국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애매한 “사회적 감각” 혼자서는 이를 해내지 않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 상황 그 자체와, 그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별 협약에서 단체 협약으로의 변화가 노동계급의 발전에 얼마나 큰 득을 냈는지 압니다, 그리고 노조가 어떤 세심한 작업을 했어야 했는지 압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 가정들을 위한 공동 살림살이로의 변화는 더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옛 고립적 가정 형태가 인민들의 등 뒤에서 자라납니다, 공동체적 기반 위의 새로운 생활은 변화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의식적인 활동의 도움 없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새로운 질서를 향한 첫 발은 반드시 결과로서 나타나, 새 생활 요건과 옛 습관 사이의 모순,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 정당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노동계급은 반드시 가정 생활의 모순에 대해 인지해야 하고,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난다면, 노동계급 중 매우 선진적인 분자들이 이것을 해낸 다 하면, 소비에트 관료들의 그 어떠한 타성도 프롤레타리아의 계몽된 의지에 맞서지 못할 것입니다.

개선된 살림살이의 문제를 협동주의적 방법으로 따지려 했던, 카르체프스키 동지의 아주 설명적인 이야기를 사용하며, 생활 문제에 대한 관료주의적 시각에 대해 비판한 제 격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카르체프스키 동지가 쓴 “국제 협동의 날”(저는 지금 그가 저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적는 겁니다),

“저는 옆집 노동계급의 가난한 인민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순조롭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젠장할 협동조합들, 이것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시장가격보다 더 비싸게 값을 매기고, 협동조합 가게에 가려면 수 마일을 걸어야 합니다.’ 등등 말이죠.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죠 “흠”, “우리 협동조합 체제의 90%가 잘못되었다고 치죠, 그럼 우리가 협동의 계획과 목적의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 소유권의 성질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감안하기 위해, 우선 우리의 이익과 요구에 대해 고려하면 되죠”, 그들은 다 당연히, 우리가 회관, 탁아소, 공동 부엌, 학교, 세탁소,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등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봅시다 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 중 한 남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는 소리쳤습니다 “동지는 우리가 공동체를 채울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러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동지는 누구기에 그러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시설들을 준비 하는게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동지는 방금 아이들이 지하방의 습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동지의 아내는 노예 마냥 그녀의 부엌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이익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개선합시다. 어찌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택에는 8개의 층이 있습니다. 안뜰은 작고요. 많은 것을 할 공간이 없고,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도 아주 값비쌌습니다’. 저희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안 하나를 냈습니다. ‘큰 공동체, 큰 지구가 우리 계획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는 거는 어떨까요?’ 이 제안들이 여러 번 나오기 시작한 후, 여러 종류의 가능성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주 개성적이고 소유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르주아적인 시각이 있는 제의를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사유재산 소유는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율타리를 다 철거 하고 거기에 지구 전체의 공기 오염 방지를 위한 오물통을 만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덧붙이며 “소비에트 당국에 더 큰 주택을 달라 요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끼리 어떻게든 회관과 학교를 위한 공간을 만듭시다”. 더 많은 요구와 제안이 이를 따랐습니다, ‘공동부엌은요?, 그리고 보육원은요?, 당신들 남자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대한 생각은 없어요’ 이걸 한 여자가 말했던 겁니다.

“이제 제가 그들과 만날 때마다, 그들은, 특히 여성들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동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우리 일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들은 상황에 대해 다루는 지구 회의를 열자고 제안합니다. 각 지구마다 10명 혹은 20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삽니다, 그러기에 당과 소비에트 기관의 도움이 있다면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예시는 제가 자세히 설명했던 개념들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생활 문제가 집단적인 프롤레타리아적 사고의 숫돌로 갈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숫돌은 강력합니다, 이 숫돌은 갈아야 하는 모든 것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교훈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만 생각합니다” 카르체프스키 동지에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하죠”.

일상생활에서의 남성중심성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여성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기회에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